

# 익산 마을자치연금 2호 선정

### 함열읍 금성마을,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수익모델... 연내 준공 목표

익산시가 농촌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 보장 체계로 공동체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익산시 마을자치연금 2호 마을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추진을 알렸다

시는 농촌 마을에 노후 소득을 강화하는 마을자치연금 참여 지역을 확대해 농촌 공동체 회복 기반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시는 8일 '함열읍 금성마을'을 익산시 마을자치연금 제2호 마을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전국 제호 마을자치연금 성당포구마을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데 이어 2호 마을로 진행하던 여산면 수은마을이 마을 사정으로 인해 무산되자 면밀한 수요조사와 컨설팅 진행을 바탕으로 선정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지난 5월 20개 읍면동 지역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63개 마을이 사업 신청서를 제출해 높은 사업 참여 의지를 보였다.

이 중 연내 바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마을을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 마을자금 마련이 가능한 자체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마을자치연금 추진에 대한 마

을주민들의 열의가 높기 평가되어 금성마을이 2호 마을로 선정됐다.

'금성마을'은 제호 마을인 성당포구마을과 마찬가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지원하여 마을자치연금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며, 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시는 금성마을을 기점으로 마을자치연금을 재정비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시는 국민연금공단과 손잡고 전국 제호 마을인 성당포구마을을 '마을자치연금 연주소'로 지정해 마을자치연금을 희망하는 마을주민교육, 타 지자체 벤치마킹 교육의 장 활용 등 마을자치연금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음식점들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시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안심식당'으로 빠르게 전환 중이다

## “건강한 외식 문화 분위기 조성”

### 익산시, 코로나 재확산 예방 '안심식당 179개소 운영'

익산시 음식점들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시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안심식당'으로 빠르게 전환 중이다.

익산시는 코로나19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관내 음식점 30개소를 안심식당으로 추가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익산시 안심식당은 최종적으로 2020년 73개소와 2021년 76개소를 포함한 모두 179개소에 이른다.

안심식당 대상은 관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중 식재료 취급 업소다. 이들 대상 업소 중 지난 3~5월 신청을 받아 생활방역수칙 4가지 과제 △음식 덜어 먹기 △위생적인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손씻기 시설 또는 손소독 장치(용품) 비치 등을 모두 이행하는 업소에 한해 지정한다.

안심식당은 업소당 15만원 상당의 용품(안심식당 포지션, 위생 수저집,

손 소독제)을 이달 8일, 9일 양일간 지원하고, 온라인 포털(네이버, 다음)과 T맵, 카카오맵 등을 통하여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안심식당은 음식점들의 자발적 방역 참여를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비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안심식당 지정으로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많은 시민들이 안심식당을 이용하여 건강한 외식문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심식당 지정사업은 2020년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하여 시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 지역 소식통

#### 익산시,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

익산시가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홍보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나선다.

시는 이달 말까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되돌려주기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일체 정리를 위한 환급안내문을 개별 발송한다. 익산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7월말 기준 7,340건이며 금액은 2억400만원에 이른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채납 후 납입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를 했을 경우, 국세경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지방소득세 환급분이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환급이 결정된 날로부터 5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기에 미환급금 찾아주기에 적극 나선 것이다.

지방세 미환급금 조회와 신청은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 정부24 등에서 주민등록번호 조회만으로 환급금 간단조회가 가능하며 회원가입 후 본인 계좌와 환급금액을 즉시 신청할 수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 혈관튼튼

#### 고혈압·당뇨 교실 운영

군산시 보건소는 오는 18일부터 9월 15일(매주 목요일 5회기)까지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인 심뇌혈관질환 발생 예방을 위해 혈관튼튼 고혈압·당뇨 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뇌졸중·심근경색 등 심뇌혈관질환은 발생 시 사망이나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고혈압·당뇨병은 심뇌혈관질환의 대표적 선행 질환으로 적절한 관리와 지속적 치료가 중요하다.

고혈압·당뇨 교실은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측정 및 건강 상담 △만성질환의 이해 및 합병증 예방법과 식이요법 강의 등으로 운영된다.

백종현 보건소장은 "주요 사망원인인 심뇌혈관질환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이번 고혈압·당뇨 교실을 통해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심뇌혈관질환 발생 예방과 건강 수명 연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근 기자

## “학호마을 축사 매입 속도 낼 것” 주문

### 정현을 익산시장, 총 예산 170억 투입... 내년까지 추진

정현을 익산시장이 왕궁 학호마을 축사 매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역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정 시장은 간부회의에서 “왕궁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학호마을 축사 매입은 필수적으로 진행돼야 할 사업이다”며 “올해 예산이 확보된 만큼 축사 매입에 적극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까지 매입이 완료되면 새 민공 수질과 악취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

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라”고 당부했다.

익산시는 왕궁특수지역의 가축분뇨 오염원의 근본적인 제거를 위해 현업 축사 매입대상을 학호마을까지 확대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까지 도·시비 포함 총 170억 원을 투입해 24개 농가, 돼지 2만여 마리를 매입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가축분뇨 오염원 유출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는 물론 고질적인 악취 문제 개선으로 쾌적한 정

주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 시장은 “학호마을 축사매입과 함께 생태 복원 사업까지 마무리되면 왕궁은 물론 인근 지역까지 환경 개선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정 익산 실현을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노력해달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정 시장은 지난주 마무리된 '우리동네 행복버스 타고 달리는 주민과의 대화'에서 건의된 600여건의 사항들의 후속 처리를 적극 이행해 줄 것을, 오는 12일부터 추진되는 익산 문화재 야행의 철저한 준비와 홍보를 거듭 당부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 '인구정책 UCC영상공모전' 수상작 선정

군산시가 2022년 군산시 인구정책 UCC 영상공모전의 당선작을 최종 선정했다.

시는 지난 6월 6일부터 17일까지 저출산 등 인구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결혼·출산·육아 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공모전을 개최했다.

올해부터는 보다 다양한 의견의 수렴을 위해 전국 지자체 및 대학교, 다수의 공모전 사이트에 공모전을 홍보했으며 수상자들의 편의를 고려해 기존 군산시방상품권으로 지급하던 시상금을 현금 지급으로 바꾼 결과, 군산을 비롯한 서울, 경기, 대구 등 다양



한 지역의 참가자들의 작품 응모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공모전에는 총 63작품이 응모했으며, 내·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와 중복수상 여부 등 공개 검증 등을 통해 5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최우수상 작품인 '군산의 사람, 사람

의 군산'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은 사람에게 있고 공동체의 힘으로 미래 세대를 함께 키우는 메시지를 담았으며, 우수상은 결혼의 행복함과 가정의 소중함을 담아 아이와 함께하는 일상을 동영상으로 보여줬다.

이 밖에도 인구유입 정책 아이디어, 정주여건 개선을 주제로 한 작품들과 스피드 페인팅 기법으로 군산시 인구정책을 홍보한 영상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심사위원들은 “선정된 작품들의 주제가 다양하고, 새로운 기법을 통해 영상을 표현한 것이 인상 깊었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근 기자

## 군산시 청년뜰, 그린뉴딜 창업교육 참여자 모집

군산시 청년뜰(창업센터)은 실질적인 녹색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창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제3회 군산시 지역혁신산업 특화형 그린뉴딜 창업교육'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그린뉴딜 창업교육을 통해 시민들에게 군산지역에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신산업 트렌드와 정보, 아이템 발굴을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으로 오는 22일부터 2주 동안 운영된다.

주요 일정으로는 그린뉴딜 창업교육,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전문가 멘토링, 새로운 녹색기술 창업을 위한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추진될 계획이

며, 그린뉴딜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는 전문가 심사를 통해 7개팀을 최종 선발하여 태블릿 PC, 무선 이어폰 등 시상품 및 아이디어 고도화 멘토링을 지원할 예정이다.

본 교육은 오는 18일까지 군산시 청년뜰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20명의 참여 신청을 받고 있으며, 그린뉴딜 분야에 관심 있는 군산시민(군산 내 대학 재학생 포함)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한유자 일자리정책과장은 “글로벌 탄소중립 시대의 그린뉴딜 정책에 맞는 창업교육을 통해 연계할 수 있는 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근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